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무용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무용 분야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25년 1월 10일(금) 10:00~12:15
(2차) 2025년 2월 4일(화) 10:00~12: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금수, 백현순, 성기숙, 오선명, 제한정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단위 지원에서 팀 구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작품 발표 이력 요건이 3년 이내, 창작 및 발표 지원 범위가 국내로 조정되면서 국내 무용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예술가들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무용 분야에는 총 10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행정 결격을 제외한 103건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5인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용 분야에 총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1차 서류심의에서는 작품 발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2차 서류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작품 기대성(50%)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50%)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14건의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초예술 무용의 확산과 창의적인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성, 안무 구상의 독창성, 기획의도 및 방향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청년 안무가로서 독자성과 명료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업들로, 자신만의 예술적 궤적을 심화하면서도 다양한 리서치 방식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춤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색하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기존 춤의 주제를 넘어서는 확장성을 갖추었으며, 지구, 환경, 공간, 공존, 정체성, 인공지능과 같은 동시대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탐구하면서 무용의 본질적 요소인 신체, 무대, 관객, 언어 등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춤 예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사회적 이슈나 과학·기술을 예술적 담론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이를 독자적인 안무 언어로 구체화하지 못해 창작의 밀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수 예술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기성 무용가들의 스타일을 답습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창작 주제 및 음악, 협업 아티스트의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념적 연구가 단순한 언어적 개념화에 머무르지 않고 작업 설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선정된 무용가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가들 또한 앞으로의 창작 과정에서 더욱 명

확한 기획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으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이 한국 무용계의 창작 환경을 보다 다층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예산 확보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체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